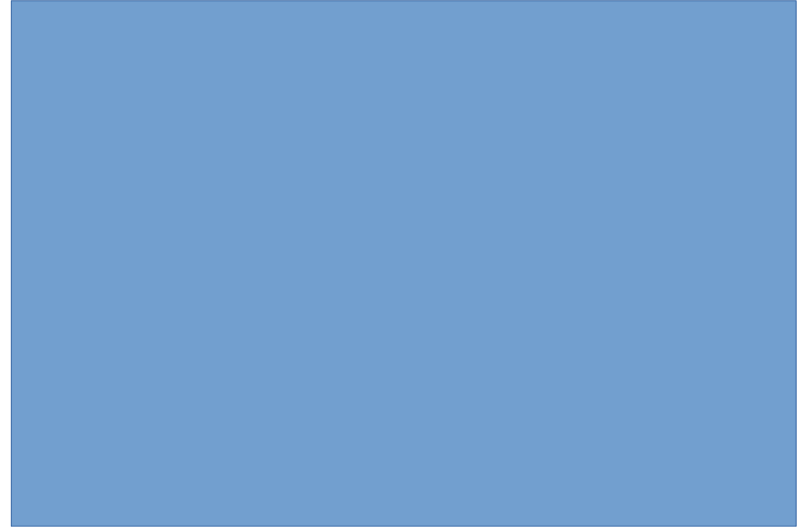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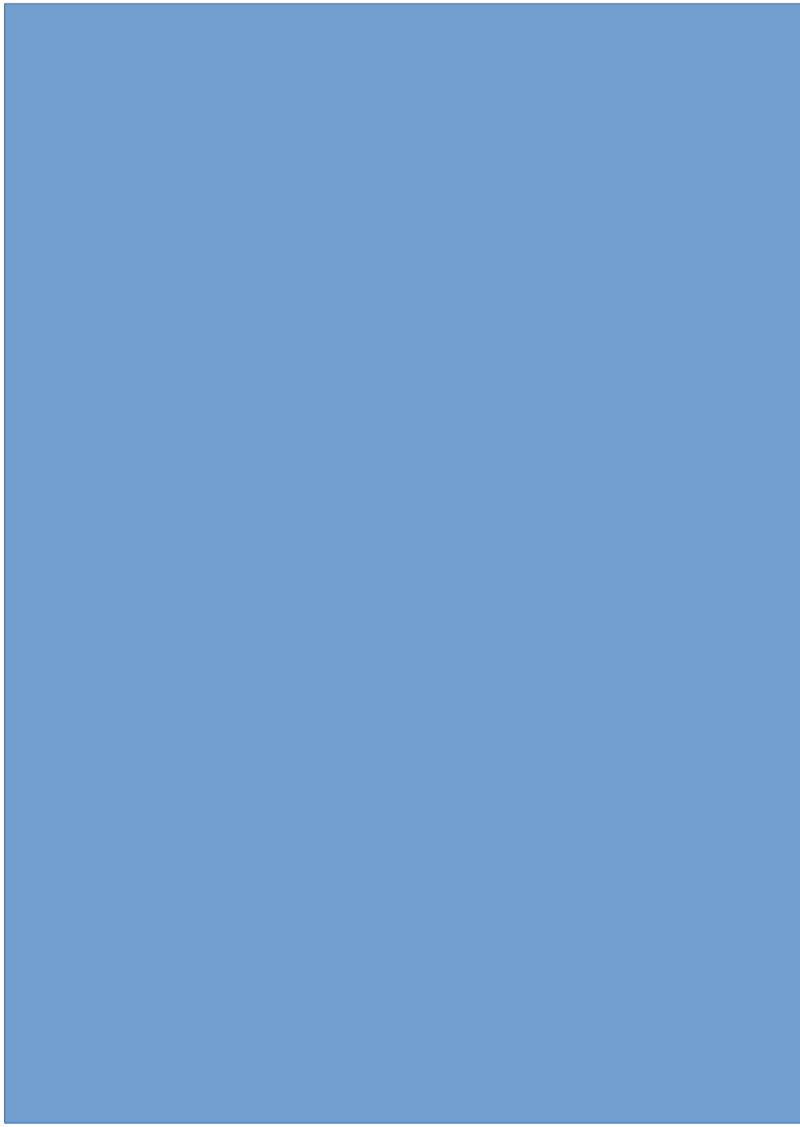


제 4 교시 **언어영역**  
**언어영역**

1

는 문항은 모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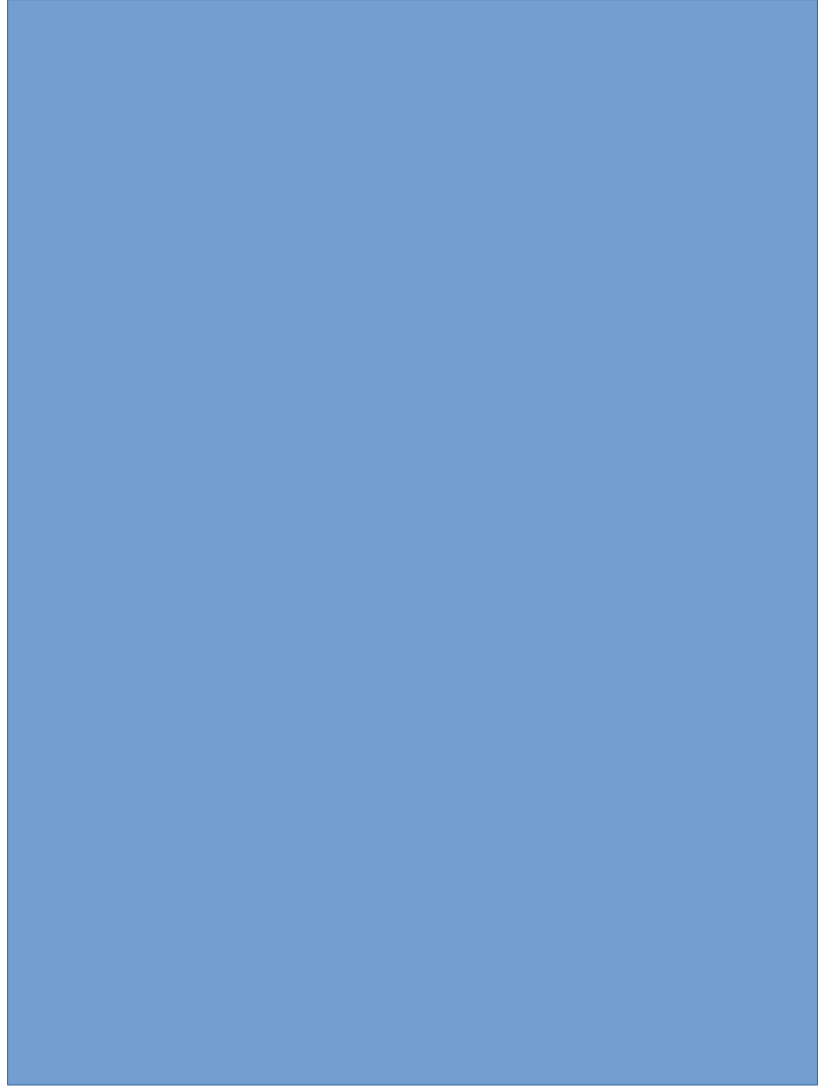
점씩입니다.



[5 ~ 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 번과 6 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2. (물음) 이 대화에서 남녀가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1 점]

# 언어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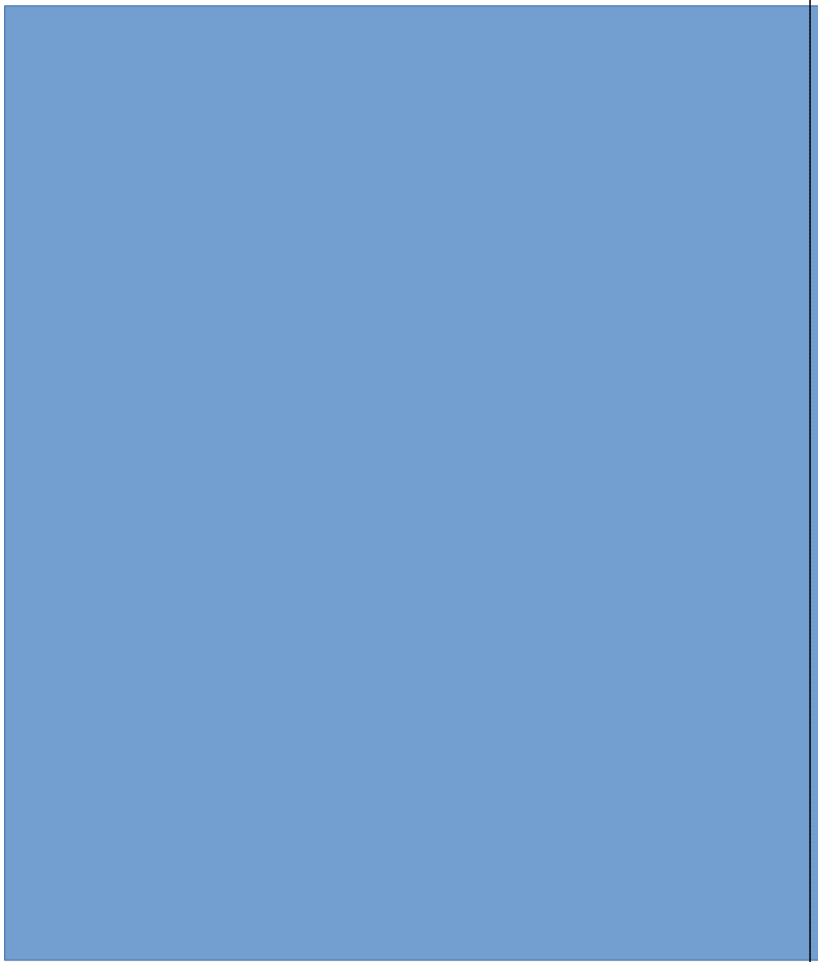
것은?



# 언어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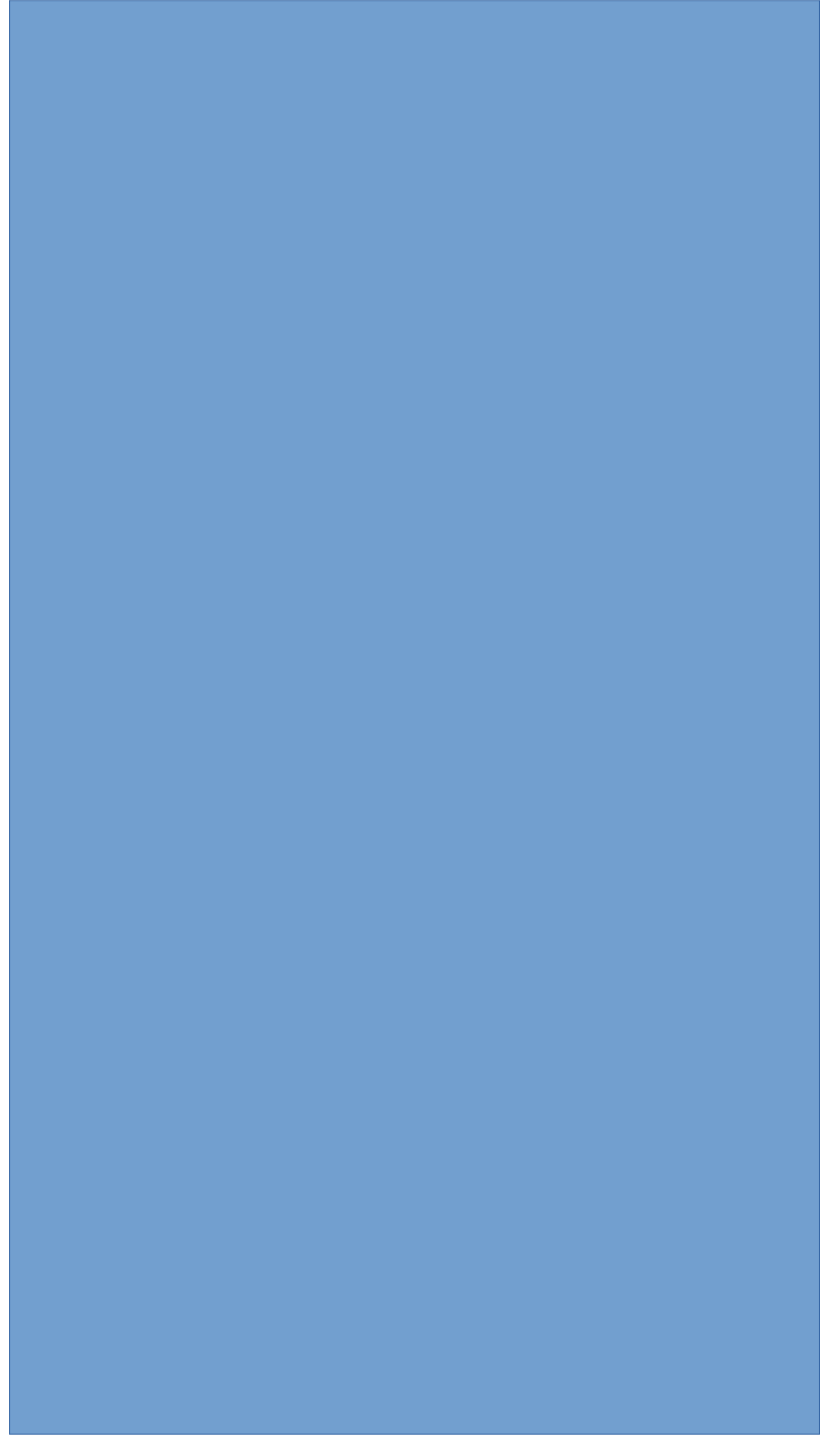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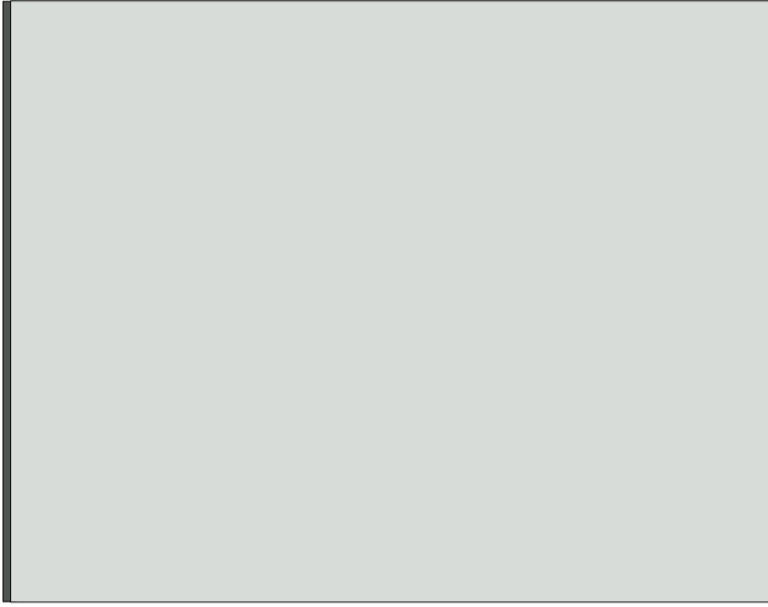
3

? [3 점]



# 언어영역

은?



# 언어영역

[장면] 철수 : "선생님, 순이 선배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탐구과정]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잣더미가 된다 해도  
 □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 -  
 (나)  
 내 말씀 광언(K?)인가 □ 저 화상을 구경하세.  
 남촌 한량(?)M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놓고  
 호의호식(????) 무식하고 미련하고 용통하여\*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가량없이 주재넘어  
 시체(?)\* 따라 의관하고 남의 눈만 위하것다.  
 장장춘일(????) 낮잠 자기 조석(?)으로 반찬 투정  
 매팔자로\* 무상 출입 매일 장취 게트림\*과  
 이리 모여 노름 놀기 저리 모여 투전(?) 질에  
 기생첩 치가(?||)하고\* 오입장이 친구로다.  
 사랑에는 조방(?)군\*이 안방에는 노구(재□) 할미\*  
 명조상(???)을 떠세하고\* 세도(?그) 구멍 기웃기웃  
 □ 염량(?ㅈ)\* 보아 진봉(?)하기 재업(?)을 까불리고  
 허욕(?)으로 장사하기 남의 빛이 태산이라.  
 내 무식은 생각 않고 어진 사람 미워하기  
 후(?)할 데는 박하여서 한 푼 돈에 땀이 나고  
 박(?)할 데는 후하여서 수백 냥이 헛것이라.  
 승기자(?◆?)를 염지(?)하니\* 반복소인(????)\* 허기진다.  
 내 몸에 이로우면 남의 말을 탄치 않고  
 친구 벗은 좋아하며 제 일가(?||)는 불목(?)하며  
 병날 노릇 모두 하고 인삼녹용 몸 보(?)하기와  
 주색잡기(???)◆ 모두 하여 돈 주정을 무진 하네.  
 부모 조상 아주 잊고 □ 내 인사(?)는 나중이요 남의 흥만 잡아낸다.  
 내 행세는 개차반에 경계판(m|?)\*을 짊어지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선봉(?)이라.  
 - 작자 미상, '우부가' -

\* 용통하여 : 소견머리가 없고 매우 미련하여  
 \* 시체(?) : 그 시대의 유행  
 \* 매팔자 : 놀기만 하는 팔자  
 \* 게트림 : 거드림을 피우며 하는 트림  
 \* 치가(?||)하고 : 살림을 넉넉히 해 줌  
 \* 조방(?)군 : 오입을 중매하는 사람  
 \* 노구(재□) 할미 : 투쟁이 할머니  
 \* 떠세하고 : 억지 위세를 부리고  
 \* 염량(?ㅈ) : 터위와 추위. 세력의 성쇠(?)  
 \* 승기자(?◆?)를 염지(?)하니 :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니  
 \* 반복소인(????) : 언행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좃대 없는 사람  
 \* 경계판(m|?) : 행동을 깨우치는 말을 적은 나무판

(다)  
 □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넛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쩍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  
 모쳐라 날랜 널식망정 □ 어혈(?)질\* 뻘하괘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금즉하여 : 섬뜩하여  
 \* 어혈(?)질 : 피멍이 들

# 언어영역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세기의 역사가 [ ] 는 역사학이 이성과 □ 상상력이라는 대립되는 두 지도자의 지배를 번갈아 가며 받고 있기 때문에 진정 위대한 역사가가 되는 일이야말로 성취하기 어려운 이상이라고 설파(?)하였다. 매킨리의 이러한 언급은 역사학에 내재하는 문학과 □ 과학성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학의 시대였던 17 세기의 대표적 사상가 [ ] 는 역사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데카르트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으며 역사 서술은 이러한 인간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역사가들 또한 자신의 민족사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색하고 과장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역사 서술의 □ 사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변함이 없는, '명백하고 확실한' 지식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았던 데카르트에게, 특정의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역사학은 시공(? $\infty$ )을 초월하는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근거가 의심스러운 학문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역사가 [ ] 와 [ ] 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바뀌게 된 과정은 역사 서술에서의 문학과 과학성의 대립상을 잘 보여 준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화와 전설 같은 요인을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헤로도토스를 흔히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다. 그런 한편 헤로도토스에게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라는 명예롭지 못한 명칭이 붙기도 했다. 이야기체 역사에 재능을 보였던 그의 글에는 여전히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기록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투키디데스야말로 '과학적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투키디데스는 인간의 본성과 정확한 사료(?)를 근거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분석함으로써 역사에서의 □일반적 법칙을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투키디데스의 역사 서술 방식은 곧 전범(?)이 되어 많은 역사가들이 그를 모방하여 역사를 서술했다. 당시의 역사가들은 이러한 역사 서술을 통해 역사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었다. 전쟁의 복잡하고 미묘한 원인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서술하는 일은 당시 일반 대중의 의식과는 유리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다. 역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대중들의 관심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문학적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과학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역사학 자체가 '지식을 위한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 ] 는 '나의 행동의 폭을 넓혀 주거나 직접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못하면서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모든 것'을 증오한다고 말했다. 숨결과 혈기를 지닌 개인들이 역사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역사가 우리의 삶 자체를 고양시켜 주기 위해서는 문학적 수사법이 특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 언어영역



그런 허준을 이끈다.

**우공보** 갑시다. 자, 그럼 우린 이만 떠나겠소.

우공보 걸음을 옮기는데. 허준, 결심을 굳힌 듯.

**허준** 먼저 가시오.

( ⊖ ) 허 의원! 먼저 가라니? 하면 허 의원은 아니  
갈 생각이요?

갑시다. 저기 저 병자들을 다 보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나, 조금은 더 손을 봐 주어야 할 병자가 여럿  
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요? 여기는 충청도 진천이요. 한양까지 2  
백 60 리 길이란 말이요.

하루 정도의 말미는 더 있을 것입니다.  
오늘밤에라도 길을 나서면 과거를 치르는 전날까지는  
한양에 당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양에 당도하면, 과장엔 곧바로 들어갈 셈이요? 그간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시제를 가늠해 볼 여유도 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슨 재주로 시험을 치르단 말이요?

**허준** …….

이러지 말고 함께 떠납시다. 예서 발목을 잡혀 평생을  
기다려 온 과거를 포기할 셈이요?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 12. 초가 마당  
방문을 열고 떠날 차비를 한 허준과 우공보가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웅성거리는 사람들.

**돌쇠** 버, 벌써 떠나시는 겁니까요?

별써라니, 약속했던 한나절이 지난 지가 언젠데.  
우린 더 지체할 시간이 없네.

하지만 아침 나절부터 사람들이 제 차례 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허준, 애원이 가득 담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마주하자  
괴로운데. 허준과 함께 나온 촌로도 안타까운 얼굴이다. 그 때 차레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사내가 허준에게 사정을 한다.

( ⊖ ) 의원님, 이제 막 제 차례인데 어떻게  
저까지만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지겔 지다가 다친 허리에 침  
한 대만 놔 주십시오.

제 사정도 급합니다요. 이 사람을 봐 주실꺼면 제  
등창도 고쳐주십시오.

( ⊕ ) 그만들 하게. 애초에 우리가 한나절만  
있어 달라고 약속하질 않았어.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 때문에  
의원님 대사를 그르쳐서야 되겠는가.

허준, 이들의 모습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한데. 우공보,

허준이 갈등하는데. 그런 허준의 눈치를 보던 병자들 중 사내 1 이  
앞으로 나서면서.

의원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파도 참고 살다가  
의원님이 치료해 준다는 말에 조금이라도 나올까 싶어  
찾아왔습니다요. 염치없는 줄은 알지만서두, 기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조금만 더 봐 주십시오.

정말 답답한 사람일세. 맥내 사정 딱한 건 알지만  
우리도 평생을 벌러 과거 길에 나선 거요. 그런 우리를 잡으면  
죽으란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남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내 미숙한  
재주나마 필요하다면 이대로 뿌리치고 갈 순 없습니다.

허 의원!

**사내 1** 갈려면 당신이나 가지. 왜 자꾸 방해여!

**우공보** (사내를 노려보면서) 뭐야?

( ⊖ ) 맥은 나설 거 없어요. 저기 저 의원님만  
남으면 되니까. 갈길 가슈!

이 때 뒤에 있던 병자들, 맞아. 저놈 자식. 웬 방해여. 갈려면 당신이나  
빨리 가! 등등의 욕설이 튀어 나온다.

( ⊕ ) 나도 밤새 한숨도 눈 못 붙이고 당신들  
병을 봐 준 사람인데. 그런 나한테 욕을 해? 에이 배은망덕한  
것들!

(허준을 보고) 난 허 의원께 정이 쏠려 설사 고생이 되더라도

같이 갈까 했소만 더 이상은 저따위 우매한 것들 상대 못하겠소. 난 가리다.

다급한 마음에 막말을 한 것이니 너무 서운해 마시오. 한양 가서 뵙지요.

우공보, 그런 허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초가 마당 밖으로 나간다.

허준, 그런 우공보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서 병자들을 본다. 하나같이 헐벗고 굶주려 피골이 상접한 가난한 얼굴. 그들이 허준을 향해 애처롭고 간절한 시선을 보내는데.

이 때 처음 허준을 버드네로 데려왔던 사내가 허준을 보고,

면목이 없습니다요. 제가 아니었으면 하마 한양 근처에 당도하였을 터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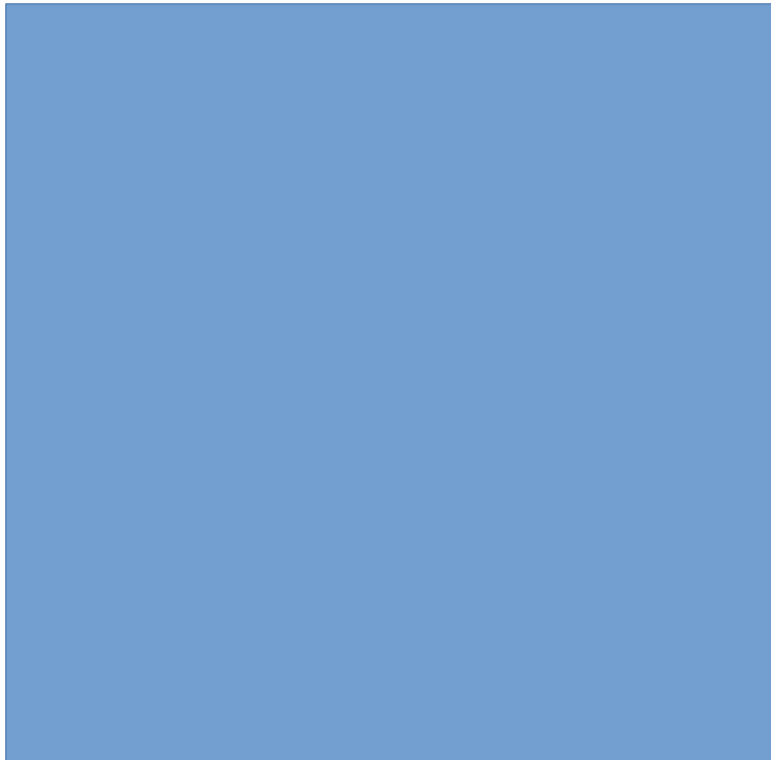
됐소. (마음을 다잡고 병자들을 본다.) 다들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의원이 들여다본다고 병이 절로 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닌 것은 오직 이 침통 하나뿐 따로 약재를 지니지도 못했으니 오늘 하루 안에 모든 병이 다 나으리라는 욕심은 버리셔야 합니다. 나는 달이 뜰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최완규, '허준' -

# 언어영역







기회를 얻고 경제 활동에 대거 참여하게 되자, 이런 변화는 '근대적 여성성'의 위기로 이어졌다. 여자들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일터에서는 여성적이기보다 중성적이기를 요구 받으면 서도,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의 요구를 충실히 들어 주는 종전의 여성성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성의 위기는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크게 완화되었다. 20세기 초반부터 여성 중심의 남녀평등주의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대부분 통계적인 차이이지 절대적인 차이는 아님을 강조해 왔다. 만일 성에 따른 생득적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그냥 두어도 드러날 것이니, 미리 성별에 따라 다르게 사회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렇게 여성들이 여성성을 스스로 규정하는 운동을 펼친 결과, 여성들은 가정과 일터 모두에서 스스로의 자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선진적 조직인 벤처 회사들의 탁월한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시사한다.

여성들이 스스로 여성성을 새롭게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성의 딜레마'를 나름대로 극복해 갈 즈음, 남자들은 남성성의 위기를 겪게 된다.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책임감 있고 용감한 신사들이 급격히 사라지는 한편, 책임을 회피하고 감상적이며 나약한 '신종 남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신세대' 남자는 남자됨을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기피하거나 거부하려 든다.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아늑한 공간인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고실업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장이 되는 꿈을 꾸던 남자들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가장 큰 거부감을 드러내는 집단은 전통적인 남성성에 자존심을 걸고 있는 보수적 남성들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여자를 보호하는 '강한 자' 또는 가장이라는 점에서 찾았던 남자들은, 여성이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에서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자존심이 상한 남자는 무리한 방식으로 자신의 남성성을 회복해 보려 하게 되는데, 남성들의 폭력은 상당 부분 이런 근대적 남성성의 붕괴 현상과 관련이 있다.

지금 우리는 여성성보다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다. 정복과 경쟁의 표상으로서의 남성성이 해체되어야 할 지점에 온 것이다.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는 사회에서 사실상 근대적 남성성의 덕목인 독립성과 경쟁심, 권력 지향성은 오히려 사회적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각자적 논의들은 모두 소통과 보살핌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눈물을 흘리는 남자, 감정으로 소통할 줄 아는 남자, 평등 의식과 보살핌의 능력을 가진 남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설이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근대 초기의 여성상은, 가족의 생계 부양자이자 가장으로서의 남성상을 보완하는 모습이었다. 모성, 의존, 감정, 사랑스러움 등이 그 여성상의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여자들이 고등교육의

# 언어영역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내용 구조〉

오빠는 진범이 아니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실린 신문 기사를 보며 쾌재를 부른다.

생명이 위독한 어머니 때문에 갈등하던 그는 결국 지령 수행을 위해 나선다.

은 심한 자괴감에 빠진다.

"민, 너는 요전번처럼 멋지게 해치울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겠지?"  
 민은 그리 자신이 서지 않는 표정을 하였다.  
 "왜?" / "그를 죽여야 한다는 자신이 서지를 않기 때문이야."  
 왜? 왜? 왜? 하는 질문이 그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연거푸 떨어졌다. 세모진 날카로운 시선…… 그는 그 날카로운 시선을 대수롭지 않게 걸으며 받아넘겼다. 날카롭던 상대방의 시선이 곧 부드럽게 개어갔다.  
 "또 어머니 생각이 난 모양이군, 응? 그러나 우리는 하나만을 위해 서 있지 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지."  
 "그만!" / 민은 상대방의 말을 급히 가로막았다.  
 "다만 쏘아 달라고만 해. 그 이상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수다한 난관이 일어났다. 십육 시, 대낮이다. 쏘는 것은 문제없지만 도망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만 유리한 조건이란 인적이 드문 한길이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곧 묘안이 제시되었다. 즉 정각 이십 분 전부터 한 동료와 함께 담뱃가게 앞에 서 있는다. 그는 될 수 있는 한 담뱃가게 쪽을 향하여 서 있고 한 동료는 길 건너편 건물 입구 쪽을 향하여 서 있는다. 만일 그 자가 나오면 그에게 암시를 주고 길을 건너간다. 곧 뒤따라 길을 건너가다 앞서가는 그 동료를 은폐물로 이용하며 틈을 보아 상대방을 쏘아 넘기고 맞은편 골목길로 뛰다. 그러면 그 주위에 대기시켰던 동료들이 그자의 호위경관이 달려오기 전에 범인을 잡는 듯이 보이며 그 골목으로 추격한다. 다행히 그 시각에 골목 안을 지나가고 있는 청년이 있으면 무조건 그를 때려눕힌다. 그리고 그를 범인처럼 만든다.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수사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의식불명케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불행히도 그 시각에 그 골목 안을 통과하는 청년이 없으면 비상수단으로 추격하는 척하며 길을 방해하다 도주한 방향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는다.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시각에 그 골목을 지나가던 청년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 청년은 계획대로 범인으로 체포되고 신문은 그대로 보도하였다. 그는 저격 후 그곳에서 가까운 한 동료의 집에 들르자마자 옷을 벗어던지고 잠시 쓰러져 누워 있었다. 그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얼마 후 그는 가슴이 답답하여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선술집에 들렀다가 나오던 길에 석간 신문을 사보았던 것이다. (중략)

# 언어영역

소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오빠**가 범인이 아니라고 좀 써 주세요, 네! 오빠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오빠가 결코 범인이 아니라고 한마디만이라도 좀 써 주세요. 어머니가 불쌍해요. 어머니가 불쌍해 못 보겠어요. 오빠는 어머니 약값을 구하러 나갔던 거예요. 어머니는 이대로 돌아가세요."

**소녀**는 흑흑 소리 죽여 흐느꼈다. 그러나 잠시 후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소녀의 시선은 놀랍게 빛났다. 낯선 이 청년의 두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민**은 소녀에게 자기의 눈물을 뱉지 않으려고 약간 시선을 밑으로 떨구었다.

"그래 의사가 왔었소?"

민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소녀는 말을 잊어버린 듯이 의아한 시선으로 다만 그를 마주 볼 뿐이었다. 민은 포켓에서 돈을 꺼내어 소녀의 손에 쥐어 주었다. 소녀의 손은 차돌처럼 싸늘히 식어 있었다. 소녀는 너무 뜻밖의 일이라 아무 반응도 없이 다만 그가 쥐어 주는 돈을 그대로 받아 들고 마치 낯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그를 쳐다보고 섰을 뿐이었다. 그는 너무도 가슴이 벅차서 그대로 돌아섰다. 소녀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이 몸을 움직거렸다.

"저- 누구신지……"

그는 대답 없이 소녀를 잠시 돌아보았다.

"오빠는 곧 돌아올 거요. 안심하고 어머니 잘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가볍게 머리를 한번 숙이고 걸음을 옮겼다. 소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다시 흘러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민은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몹시 초조스럽게 서로의 호흡을 죽여 가고 있었다.

"그래서?" / 세모진 날카로운 시선이 번득 빛났다.

"나는 너한테 심문을 받고 있는 게 아니야."

민은 그의 발언을 목살이나 하듯이 쿡 찢렸다. 그 순간 세모진 얼굴은 그 미묘한 웃음을 또 입가에 훑 날렸다.

"신경이 몹시 날카롭군, 응? 너와 나와는 그러한 사이가 아닐텐데…… 그렇잖아? 왜 너는 아홉이라는 숫자 앞까지 와서 마지막 한 숫자를 스스로 버리려나 말이다. 눈앞에 점점 퇴어 가는 큰 길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닐 테지?"

그러나 민은 그 말을 상대도 하지 않았다.

"잘 들어 뒤. 나는 평범한 인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해 보고 싶어졌단 말이다. 위대(?)한 하나의 일의 성공보다는 나는 오히려 소박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하나라도 더 소중스러워졌단 말이다."

"너는 아직 역사라는 것을 모르고 있군."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희생을 강요하는 역사를 요구치 않아."

"그럼 너는 의의라는 것을 부인한단 말이나?"

"인간의 의의를 묻고 살기보다는 나는 오히려 묻지 않고 살기를 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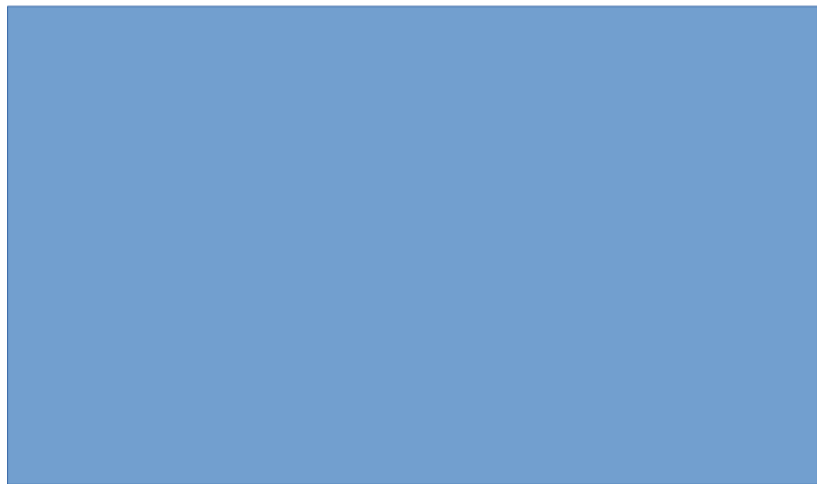
"변절이야?" / "아무렇게 생각해도 좋아. 나는 돌아가겠어."

"어디로?" / "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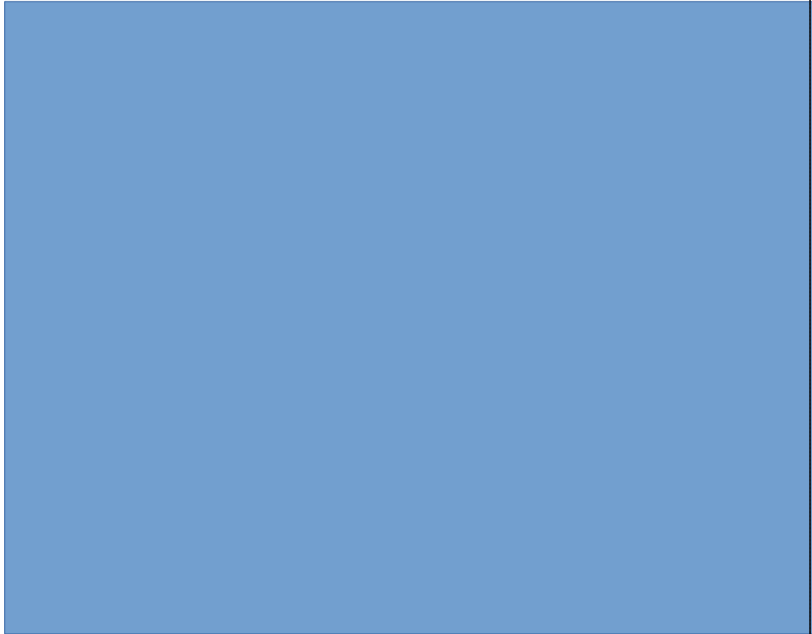
"집?" / 세모진 얼굴에 경멸적인 조소가 어두운 그늘을 깔며

스쳐갔다.  
"자수할 생각이냐?" / "그처럼 어리석진 않아."

민이 일어서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벌떡 일어서며 권총을 빼어들었다. 순간 긴장이 물결처럼 쪽 깔려 갔다. 그러나 민은 한 점 표정의 동요도 없이 침착한 태도로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 오상원, '모반(??)' -



# 언어영역



알아 보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다) 첫째, 반복을 통한 강조의 효과이다. 일반적인 의사 소통의 효율성에서 보면 반복은 의사 소통의 효율성을 □ 떨어뜨리지만 광고 언어에서는 제품명과 중심 의미에 수신자의 주의를 관심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문장 내의 한 성분을 생략시켜 문법적 불완전성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대하는 □ 수신자가 생략 부분을 복원해 내는 상상력을 기울이게 하여 강조의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물론 언어 기호가 아닌, 시각 이미지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도 강조의 한 방법이 된다. 셋째, 신조어를 통한 시선 집중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신조어들은 주로 기존 대상의 새로운 측면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다.

(라) 언어 기호들의 운율적·통사적 반복은 단어와 문장, 문장과 문장 간의 합리적 연결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수신자는 송신자의 의도를 추론함으로써 구매 욕구를 느끼고 이는 구매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지나친 반복은 수신자에게 무의미하고 단조로운 기호의 나열로 여겨질 수도 있다. 생략은 표현 측면에서 본다면, 송신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수신자가 이미 이해했으리라고 믿는 정보를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청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생략은 의미상의 모호성을 □ 부르거나 수신자가 생략 내용을 잘못 해석하게 할 우려도 있다. 신조어는 언중들의 언어 체계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새말이 우리말의 조합 방식에 어긋나거나 정확하지 못한 어휘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이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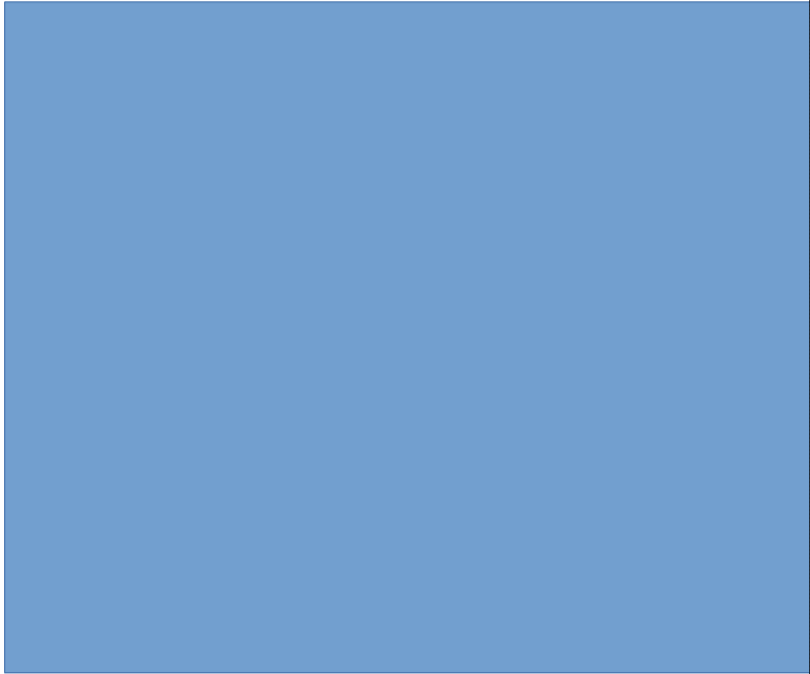
(마) 요컨대 광고 언어는 수신자에게 나타날 여러 가지 복잡한 반응들을 □ 헤아려 치밀한 표현 전략을 사용해야만 전달력이 풍부하고 호소력이 강하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치밀한 언어 표현이라 해도 제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전달하려는 의도를 진실되게 알려야 한다는 광고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광고 언어란 광고를 수신하는 소비자의 효과적인 수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언어 결과물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광고에 나타난 언어 표현의 의미는 순수한 언어 내적인 의미만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소통의 사회적 맥락 아래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의사 소통과는 달리 시간적·물리적 거리를 두고 수신자를 설득하는 의사 소통 방식을 취하므로 수신자의 구매 행위를 의도하고 있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품을 만든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만 광고의 최종 목적에 □ 다다를 수 있다.

(나) 광고 언어에서 성공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송신자의 의도를 수신자가 정확히 추론할 수 있도록 언어적 표현이 잘 □ 짜여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송신자는 좀더 다양한 언어 표현을 위한 전략들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반복이나 생략, 신조어를 사용하는 방법과 효과를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이 누리는 정신적인 경험의 폭과 깊이는 다른 동물에 비해 월등하다. 이는 인간의 두뇌가 다른 동물에 비해 발달해 있기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해면과 같은 하등 동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들의 신경계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사실이다. [ □ ] 것처럼, 배열된 구조와 서로 연결된 패턴 그리고 사용된 세포의 수에 따라서 기능이 판이한 신경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 독립된 형태와 기능을 갖춘 신경 세포의 시초는, 원시 후생 동물이 운동을 시작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동물의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의 일부가 신경 세포로 변한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물이 앞으로 움직일 때 표피 세포는 환경상의 변화로 인해 제공되는 여러 자극에 부딪히게 되며, 일부 표피 세포는 환경 자극에 대해 보다 민감해져서 세포 내부를 흥분 상태로 변하게 하는 성질을 획득한다. 이 중 일부는 표피 내부로 들어가 세포 형태를 변화시키고 다른 세포와 연결을 형성하게 되며, 표피에 남은 신경 세포는 감각을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로 들어간 신경 세포는 양쪽으로 가지를 만들어 가지의 한쪽은 표피에 남아 감각을 수용하는 세포와 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운동을 일으키는 반응 기관과 연결된다. 신경계와 피부가 발생학적으로 동일한 기원을 가진다는 사실은 신경 세포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러한 추측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다) 동물의 신경 세포에 의해 감각 기관과 반응 기관이 연결되면, 먹이에서 발산되는 화학 물질이나 빛 에너지 등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감각을 자극함에 따라 신경 세포는 흥분하게 되고, 이 흥분이 반응 기관에 전달된다. 감각 정보가 반응 기관으로 전달되면 동물은 반사적인 운동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환경 자극을 탐지할 수 있게 되면 먹이를 찾고 위험을 피하는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라) 그러나, '감각'과 '반응'이 직접 연계될 경우, 상황에 따른 유연한 행동은 불가능해진다.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되는 반응을 수행해야 생존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방에 탐지된 물체는 접근해야 할 먹이일 수도 있지만 회피해야 할 천적일 수도 있다. 감각 정보에 의해 운동 반응이 반사적으로 결정되는 신경계를 가진 동물은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

# 언어 영역

(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력된 환경의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가 요구되며, □ 감각 기관과 반응 기관 사이를 매개하는 처리를 담당할 세포 집단이 발달하게 된다. 단순한 '감각-반응' 단계에서 '감각-처리-반응'의 단계로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한 핵심은 신경계의 진화이다.

(바) 개체의 생존에 중요한 신호를 처리하는 기관인 뇌는 감각 기관과 반응 기관 사이에서 처리를 담당하는 기능을 가진 신경 세포들이 신체의 한곳으로 모여 서서히 진화한 결과물이다. 인간의 신경 체계 역시 '감각-처리-운동'의 단계를 따르고 있으며, 뇌는 신경 체계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두뇌는 진화의 산물이다.

[48~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송나라 때 김전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전에 살려 주었던 거북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지고, 거북에게서 '(수)자와 '(복)자가 새겨진 진주 두 개를 얻는다. 김전의 딸 숙향은 전쟁으로 부모와 헤어져 온갖 가혹한 시련을 겪는 중, 전생에 천상에서 선녀로 지내던 때의 꿈을 꾸고 나서 그 광경을 수로 놓는다. 병부상서 이위공의 아들 선은 숙향이 수를 놓은 그림을 보고,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전생의 모습과 같은 데 놀란다. 그리고 숙향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녀의 말을 떠올리고 숙향을 찾아가 마침내 그녀와 혼인을 한다. 한편 양왕의 딸 매향과 이선은 정혼한 사이였는데, 이선이 정혼을 파하고 숙향과 혼인하는 바람에 양왕은 이선에게 앙심을 품고 해할 마음을 갖는다.

이 때에 황태후 병이 드시되 증세 괴상하여 귀 먹고 눈 어둡고 말 못하는지라. 일국이 진동하더니, 한 도사가 와서 천자께 뵈옵고 여쭙어 말하기를,

"이 병환은 침약(??)으로 고치지 못하고 다만 봉래산 개인초와 천태산 병이용과 동해 용왕의 개안주를 얻어야 나으실 것이니 어진 신하를 보내어 정성으로 구하소서."

하니 상이 즉시 조신을 모으고 의논하실새 양왕이 아뢰어 말하기를, "조신 중에 이선이 가히 보냄 직하오니 얼마 아니하여 약을 얻어 올까 하나이다."

상이 초공을 부르시어 말하기를, "짐이 경의 충성을 아노니 이 약을 얻어 오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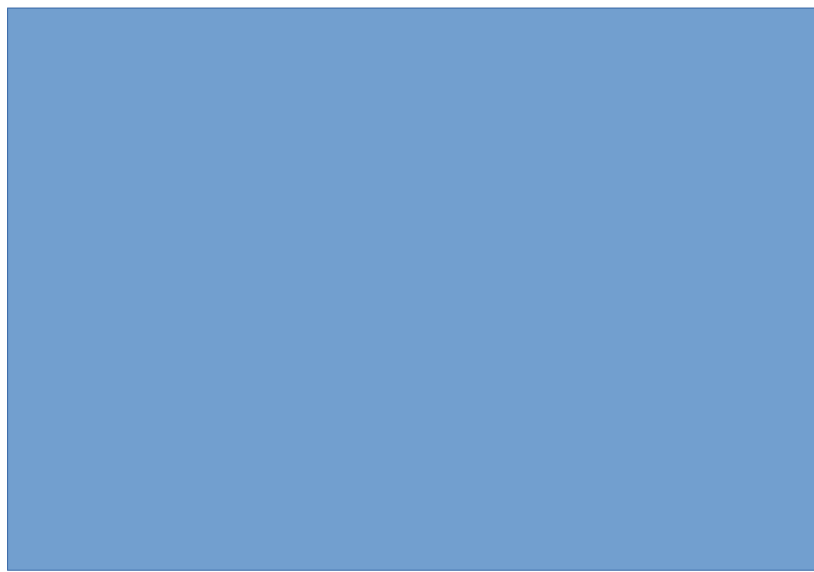
하니 초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자(??) 되어 어찌 폐하의 이르심을 사양하리이까마는 다만 세 곳이다 인간 세계가 아니오니 돌아올 기한을 정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오니, 부모와 상서 모두 이별할 때 다시 못 볼까 서로 슬퍼하며, 부인과 서로 이별할새 초공이 말하기를,

"나의 길이 앞일을 모르는지라, 부인은 나를 위하여 부모를 지성으로 섬기고 부디 보충하소서. 나의 목숨은 북창 밖에 있는 동백을 보아 짐작하되 나무가 울거든 병든 줄 알고 가지 무성하거든 무사히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소서."

# 언어영역

하니 부인이 또한 □ 옥지환 한 짝을 주며 말하기를,  
"이 진주빛이 누르거든 첩이 병든 줄 알고 검거든 죽은 줄로 아소서."  
하고 봉한 글을 주며, '천태산 마고 할미께 전하라.' 하더라.  
초공이 부모께 하직하고 발행하여 남쪽으로 향하더니 배에 오른 지  
보름만에 큰 바다 가운데 들어 대풍이 일어나 배가 물 속에 출몰하여 배  
안 여러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차에 문득 한 짐승이 물 속으로부터  
내달으니 그 고기 뿔 같고 뒤통박 같은 눈이 셋이로되 눈빛이 불빛  
같은지라. 소리 질러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사람인데 남의 땅에 지세도 아니 주고 당돌히 지나가고자  
하느냐?"  
하니 초공이 말하기를,  
"나는 중국 사신으로 황태후 병이 중하시어 황명을 받들어 봉래산에  
선약을 얻으러 가니 잠시 길을 빌리고자 하나이다."  
그 짐승이 말하기를,  
"잡말 말고 가진 보배를 다 주고 가라."  
하며 배를 잡고 힐난하거늘 초공이 민망하여 빌며 말하기를,  
"가져가는 것이 양식밖에 없노라."  
그 짐승이 성내어 말하기를,  
□ "정녕 보배를 짐작하거늘 정 아니 주면 이 배를 엮치리라."  
하니 공이 어쩔 수 없어 옥지환을 내어 주니 그 짐승이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동해 용왕의 개안주(개?)니 네 어디 가서 훔쳤느냐?"  
하고 배를 끌고 가니 한 곳에 다달아 그 짐승이 배를 머무르고  
말하기를,  
"용왕께 여쭙어 네 죄를 물은 후에 놓아 주리라."  
하고 들어가더니 이윽고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선관?)이 나와 물어  
가로되, / "네 아내가 누구의 딸이냐?"  
공이 말하기를, / "내 아내는 상서 김전의 딸 숙향이네이다."  
그 선관이 들어가더니 용왕이 나오신다 하여 수중이 진동하며 왕이  
나와 초공을 맞거늘 공이 가장 송구하여 나아가 재배하니 왕이 붙들어  
앞에 올려 자리를 정하고 앉은 후에 왕이 사죄하여 말하기를,  
"저는 이 곳 용왕이러니 귀인이 지나가실 줄을 어찌 뜻하였으리오?  
지난 날 내 누이를 반하수에서 김 상서가 구하시어 살아나매 은혜 갚을  
길이 없어 이 진주를 드렸는지라. 복(?)자를 가졌으면 사람이 오래 살고  
죽은 몸에 엮어 두면 천만 년이라도 살이 썩지 아니하는 보배라. 수족  
등이 다 아는고로 오늘 순행하다가 멀리서 상서의 기운이 있다 하기로  
알아 오라 하였더니, 아랫것들의 전언을 들은즉 귀인이 가신다 하기에  
반가운지라. 대저 봉래산에 가시면 약은 얻으려니와 여기서 일만이천  
리나 되고 십이국을 지나가고 약수(약수?)가 가려진 데 있으니 인간의  
배로는 건너기 어려울까 하노라."  
- 작자 미상, '숙향전' -



[53~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양에서는 풍경화가 일찍부터 발달하였지만 서양에서는 시기적으로  
그보다 한참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런 현상의  
바탕에는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는 두 문화권의 시각 차이가 깔려 있다.

동양의 사유 형태에서는 세계를 신비적 직관에 의거하여 □ 종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아의 개별적 주관성보다는 세계와 하나 됨을 지향하는 합일성(???)을 강조한다. 반면 서양의 사유 형태에서는 냉철한 이성<sup>이성</sup>에 의거하여 세계를 □ 분석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아를 세계와 대립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는 개별적 주관성을 강조한다.

동양화가 풍경화를 주된 흐름으로 하여 전개되어 온 원인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 자연을 인간과 교감을 나누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인합일(????)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산수화를 그렸다. 그러나 서양의 정신 체계 속에서는 이 같은 태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들의 자연은 어디까지나 인간과 대립 관계 속에 놓여져 있었으므로 애초부터 풍경화가 중요시될 수 없었다.

서양에서 풍경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자연으로 귀의하려는 의식과 자연의 신비에 대한 외경심이 싹트던 18 세기에서 19 세기 초에 이르는 낭만주의 시대였다. 낭만주의 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이성 우위의 사고 속에서, 자연은 단순히 정복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이해될 뿐이었다. 그러나 서양의 합리주의적 이성에 한계를 느낀 최초의 사상인 낭만주의는 인간 이성의 왜소함을 자각하고, 자연의 신비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서양 정신은 이러한 낭만주의 사조가 출현함에 따라 비로소 자연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서양의 풍경화는 바로 이 같은 정신적 토양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 두 문화권의 풍경화가 근본적으로 같을 수는 없었다. 서양의 화가들이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는 하나, 풍경화에는 여전히 대립적인 관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인간과 자연, 그러는 자의 시점과 자연 경관이 대립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나'라고 하는 한 시점의 정지된 주관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그에 비해 동양의 전통적 산수화에는 '나'와 '자연'의 합일적 관계만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동양의 산수화에 나타나는 그러는 자의 시점은 풍경 속에 일체가 되어 그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여 나아가는 다시점(???)의 유동성을 보인다.

이렇듯 동양의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에는 동양과 서양 문화권에 형성된 자연관의 차이 및 사유 형태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정신에서 출발했던 두 종류의 그림에 나타난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것이 그림의 세세한 부분이나 표현 기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그림을 감상하는 또 하나의 재미를 제공한다.



이것은 자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주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 곳곳에서 태풍, 장마, 가뭄 등의 이상 기후가 계속되고 있다. 토론토 기후 회의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할 기후□환경적 변화를 '핵전쟁에 버금가는 재난'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각국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로 알려져 있다.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새로운 에너지원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오염 물질을 발생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의 에너지원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일부의 견해와는 달리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경우 최소한 전 세계 전력 소비량만큼은 충당할 수 있게 된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 현재 소비되는 전력을 태양 전지만을 이용하여 생산한다고 할 때, 태양 전지를 설치해야 할 면적은 뉴멕시코 주 전체 넓이의 3 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 1950년 이래 미국은 국민 1인당 연간 5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한 반면, 개발도상국의 주민은 그 20분의 1도 안 되는 225킬로그램을 방출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을 석탄으로 환산했을 때 미국은 국민 1인당 연간 10,200킬로그램을 소비했으나, 인도는 그 30분의 1도 안 되는 300킬로그램을 사용해 왔다고 한다. 이는 현대인의 풍요로운 생활과 그 근간을 이루는 산업 체제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소비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량 생산□대량 소비에 기초한 미국식 산업 체제가 전 지구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서구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미국식 체제를 따른다면, 머지않아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은 현재보다 수십 배 증가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그 어떤 에너지를 도입하더라도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현재의 환경 위기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현 산업 체제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수요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현대 산업 체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이냐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결국 산업과 생활에서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사용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